



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
술직·대담한 性

항문성병, 동성애자 전유물 아니다

20대 후반의 여성이 남자친구와 정상적인 성
관계를 하다가 우연히 항문성병을 하게 됐다. 처음에는
점점하고 격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특별한
증상도 없고 남자친구가 원해 그 후 몇 차례
더 항문성병을 하였다. 별다른 걱정 없이 있고
지내던 이 여성은 얼마 전 항문 주위에 통증은
없지만 좀처럼 같은 것이 몇 개 돌아난 뒤 점점 커
지고 숫자도 늘어나자 병원을 찾았다. 진찰 결과
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의 일종인
항문콘딜로마로 남자친구도 감염되어 함께 치
료를 받았다.

최근에는 동성애자의 전유물처럼 돼 있던 항
문성병이 젊은 여성들에게서 늘어나는 이유로
는 성개방 풍조, 퇴폐업소의 증가 및 인터넷 등
을 통한 왜곡된 불법 음란물 등의 영향으로 이를
요구하는 남성들의 증가와 이에 대한 여자의 관
대한 성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다. 또한 항문점막
은 질점막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항문성병
도중에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성병에 걸릴
가능성이 높고 항문성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
고 구조적으로 발견하기도 쉽지 않으며 통증이
나 분비물 등 뚜렷한 자각증상이 있더라도 단순
한 항문질환으로 오인하여 치료가 늦어져 병을
키우는 경우가 많다.

항문성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 상대자를 제
한하여 성병의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건전한 성
생활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성관계를 갖는
경우는 콘돔의 사용과 항문조직 손상 방지를 위
한 윤활제 사용이 중요하다. 대부분의 남성들은
콘돔을 성병 예방이 아닌 피임도구 정도로만 생
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콘돔은 요도염, 매독, 에
이즈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.
콘돔은 성관계 전 착용하고 관계 때마다 새것을
사용하며 항문성병과 질성병을 병행할 땐 콘돔
도 갈아 끼워야 하고 사정 직후 벗겨지지 않게
하며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거한
다.

아직까지도 성병에 감염된 경우 많은 사람들
이 혼자만 치료하고 성 상대자에게 합구하여 다
시 성병에 감염되는 병종감염이 많은데, 이를 막
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
성 상대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여 동시에 치료
를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.
사람마다 성의식이나 성취취향이 다르기 때
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성행위 방법을 제한할 필
요는 없다. 하지만 성관계를 유희나 쾌락의 도구
로만 여겨서는 안되며, 서로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
인식하고 성생활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항상
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행동
해야 한다. 또한 성병은 성 상대자의 건강을 물
론 임신능력 및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
으므로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나 성 상대자가 성
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
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한다. 치료가 필요
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
며 완치될 때까지는 성관계를 피하고 일부 질환
의 경우에 완치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
므로 주의해야 한다.

(명비노기과 원장)

리빙 센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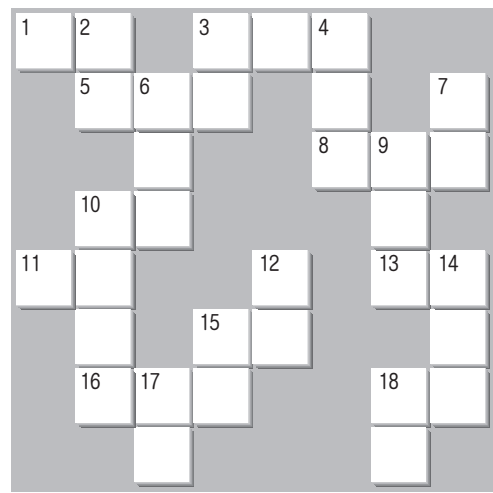
클렌징 원칙 ②

▷행균은 철저하게
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클렌징크림이나 로션 등으로
닦은 후, 폼 클렌저를 사용하는데 이때 미지근한 물로 완
전히 헹구도록 한다. 그래야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하게
없앨 수 있다.

▷충분한 거품
폼 클렌저를 사용할 때 손바닥에 덜어 바로 얼굴에 문지
르지 말고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세안한다. 그래
야 피부 자극이 덜하고, 풍성한 거품이 피부를 보호하며
더러움을 제거한다.

▷적당한 제품 사용
제품의 양이 너무 적으면 클렌징 효과를 보기 힘들고,
너무 많아도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. 티슈로 닦는 타입
의 클렌징크림이나 젤은 충분히 사용해야 닦을 때 얼굴에
자극이 없지만 폼 클렌저는 거품을 잘 내는 게 중요하다.

함께 풀어봅시다 < 330 >



<함께 풀어봅시다 329회 정답>

- ▲지난주 정답자
김효진 : 북포시 대양동
김백령 : 광주시 남구 서 2동
▲보내실 곳 :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광
주일보사 여문매체부

→ 가로풀이

1.몽골인이나 만주인의 풍습으로, 남자의 머리
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
게 땀이 늘임. 3.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
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. 5.조롱박
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.
8.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열
량. 10.자동차나 기차 등이 뒤에서 들이받음. 버스
와 자동차 두 대가 부딪치는 삼중 ~ 사고가 일어
났다. 11.예스러운 풍취나 모습. 이번 방학에 우리
는 ~이 배어있는 전통가옥과 유서 깊은 사찰을
답사하기로 했다. 13.대열이나 행렬, 활동 등에서
맨 앞. 결승 지점이 가까워지자 우리나라 선수
가 ~로 나섰다. 15.약간 움직임. 두 아이의 커다란
눈동자 네 개가 ~도 않고 호랑이를 쳐다본다. 16.
담뱃잎을 썰지 아니하고 통째로 돌돌 말아서 만든
담배.→시가, 여승연. 18.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
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감압적으로 얽어매거
나 제한함.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되면서 서열,
노비도 양반의 ~에서 벗어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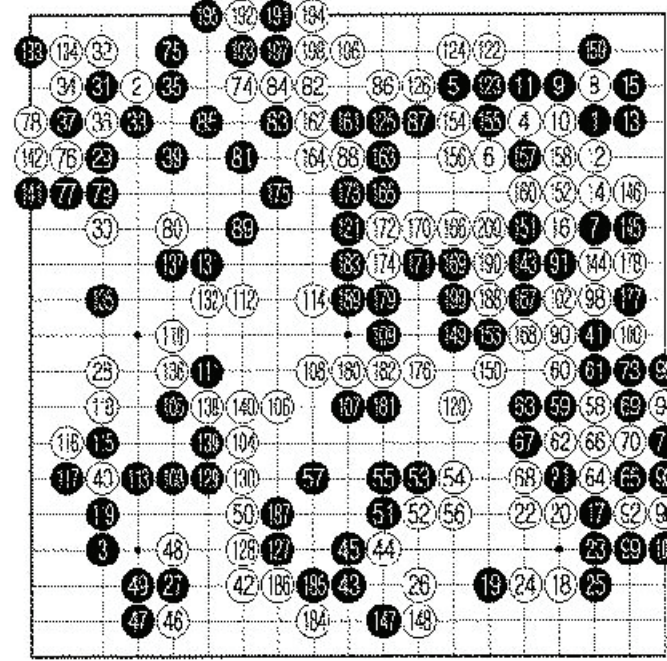
↓ 세로풀이

2.어떤 사실이나 결과 등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
어 알림. 소비자 보호 단체의 ~에 따르면, 식품 유
통 기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. 3.아내를
박대하는 일. 4.상처, 코, 위, 장, 방광 등을 씻는 데
쓰는 의료 기구 또는 식기를 씻는데 쓰는 기구. 설
거리를 식기 ~로 했다. 6.기동 말에 기초로 받쳐
놓은 돌.→초석. 7.열이 남. 또는 체온이 높아지거
나 그런 증상. 9.짐을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배.
10.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란 뜻으로 어떤
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헤어져 헤어
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12.강원도에서
대관령 동쪽에 있는 지역을 이르는 말.→관동. 내
일 ~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. 14.줄을
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. 15.깨
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. 17.
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운을 내서 힘차게 일
어남. 이날 초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~대회가
있었다. 18.농구나 배구에서 상대방에게 준비할 기
회를 주지 않고 재빠르게 하는 공격.→지공.

제89회
전국체전바둑대회

조경진 전국체전 2연패 성공

여성부 결승전 총보(1~200)
白 조경진 5단 黑 박지선 5단
(경기도) (경기도)



이 바둑은 결국 백 200 수까지 가는 접전
끝에 조경진 5단이 박지선 5단을 불계로 꺾
고 지난 해에 이어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
다.
바둑이 전국체전에 편입되면서부터 여성
부는 경기도의 강세가 짙어지고 있는데
올해도 어김없이 경기도 팀이 결승전에 모두
진출 자매대결을 벌이면서 결승전의 열기가
조금 식은 감이 없지 않다.
그러나 타 시·도 팀도 여성부를 전라중목
으로 지정하고 여성 강자 육성에 박차를 가
하고 있어 앞으로 여성부가 금메달을 차지하
기 위한 치열한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.
이 바둑은 박지선 5단이 조경진 5단을 의식

하여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
것이 눈에 띈다. 그러나 흑 41로 우변에 한칸
더 벌인 것이라든지 한줄 왼쪽에 두지 않은
57 등 반면 운영에서 미숙함을 보이면서 조금
씩 조경진 5단의 페이스에 밀려들고 있다.
백 90으로 우변을 밀어왔을 때 흑 91로 짓
힌 수가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. 이 수로는
바로 두점머리를 쪼갤 자리로 그랬으면 실정
처럼 102까지 처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
이다.
박지선 5단으로서의 경험부족을 절감한
한편이여 조경진 5단의 노련미가 돋보인 결
승전이었다. 백 200 수 끝. 백 불계승.
<오규철 9단·본보 바둑 해설위원>

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

EL DORADO
에도라도리조트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8일(음 11월 11일 壬午)

- 子 36년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라 목 관절 불편하다. 48년생 원재수
가 있다. 60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매사 신중 하라. 72년생
누명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. 84년생 늦은수
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. 행운의 숫자 : 01,31
丑 37년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라. 49년생 망신수가 있으니 조심
하라. 61년생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나 자만은 하지마라. 73년생
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신하라. 85년생 본인
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. 행운의 숫자 : 02,32
寅 38년생 불면이면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언행을 삼가하라. 50
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. 62년생 소신과
행동하면 필히 이루어라. 74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.
행운의 숫자 : 04,45
卯 39년생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. 51년생 예
상치 못했던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라. 63년생 인성은 지금부터
머리, 목을 아는 시기이니 행운하라. 75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
이 있을 수 있다. 행운의 숫자 : 06,36
辰 40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부분간의 이해가 부족하니 대화가 필요
하다. 52년생 재사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. 64년생 좋은 일
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. 76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
도 있다. 행운의 숫자 : 18,43
巳 41년생 직업과 돈, 남편,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. 53년생 직장
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. 65년생 협조자가
나오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. 77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
행하라. 행운의 숫자 : 23,44
午 42년생 공수에 병이 따르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. 54년생 귀인을
만나서 도움을 받는다. 66년생 나에게 불리한 일은 모두가 내 뜻
으로 생각하라. 78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
하라. 행운의 숫자 : 10,28
未 43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하라. 55년생 배우자
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다. 67년생 부모 형
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. 79년생 부모에게 효도하
는 날이다. 행운의 숫자 : 13,43
申 44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. 56년생
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다. 68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
있으나 쉽지 않다. 80년생 욕심을 버리는 자에게 승리의 여신
은 미소를 보낸다. 행운의 숫자 : 16,20
酉 45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지면 끝내는 기쁨이다. 57년생
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. 69년생 아무리 부부
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로 되리라. 81년생 애사가
생길수도 있다. 행운의 숫자 : 19,42
戌 46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이다. 58년생 어
부지라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. 70년생 이성의 만남도 좋은
계획을 세워라. 82년생 일일일,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버
리는구나. 행운의 숫자 : 22,26
亥 47년생 자기 자랑보다 동료들 칭찬하면 공은 내게로 온다. 59년생
작은 것은 내주고 귀중한 것을 취하라. 71년생 작은 일도 필
소의 각으로 추진하라. 83년생 제일 관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
람이다. 행운의 숫자 : 24,41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11-632-6121

DermaPlast
더마플라스트
제품구입문의: (주)호원약품 062-383-5883

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:
1. Is that all? 그러면 될까? (English to Korean)
2. それは 'アットマク' っていうんですよ 그건 '애트마크' 라고 하는 겁니다 (Japanese to Korean)
3. 你们老师是不是王老师? (Chinese to Korean)
4. 畫虎類狗(화호유구) 그릴 화, 범 호, 갈을 유, 개 구 (Korean to Chinese)